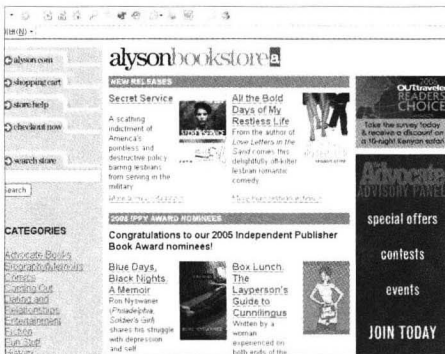


동성애 출판

동성애의 가능성(?),

동성애의 보편성을 찾아서

글 | 허선



동성애 관련 책을 출판하는 앨리슨 북스와 클레이스 프레스 홈페이지.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크래프트사 같은 미국 대기업이 미국내에 불어 닦친 동성애 찬반논란에 휘말리면서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여기에 첫 '동성애 커밍아웃 정치인'인 게리 스테드 전 하원의원의 전격적인 동성결혼은 작년 미국 전역을 흔들어 놓았던 동성결혼의 이슈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스테드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과거 자신의 선거구이자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딘 하라라는 여성과 조용히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보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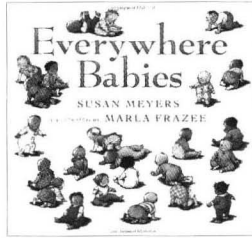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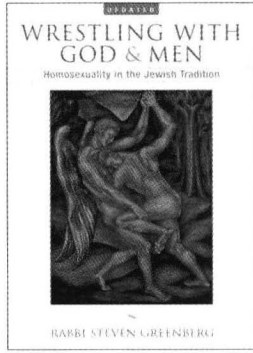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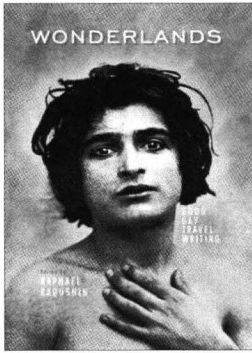
이러한 도덕적 가치의 논란이 정치권과 기업문화에 역풍으로 작용한 것에 비해 출판계에선 동성애 장르가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서 자리 잡으며 도움을 주는 순풍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는 동성애 찬반논란은 그동안 틈새시장에 머물렀던 소규모의 관련 출판사들이 동성애 관련 주류 출판사로 성장하는데 원동력이 되었고 동성애를 둘러싼 다양한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동성애 행사가 출판과 만남으로서 새로운 시장 개척도 시도되고 있다. 여기에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동성애 관련 사회현상이 자연스럽게 어린이 서적에 반영되면서 미국 출판계에는 또다시 동성애 바람이 불고 있다.

아 윗 사 이 더 에 서 주 류 출 판 사 로

몇 해 전만 해도 미국에서 동성애 관련 서적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동성애 서적은 주로 전문서점에서나 취급하는 장르였고 독자층도 두텁지 않았기 때문이다. 25년 전 독자는 물론 서점들조차 동성애라는 장르를 몰랐던 시대에 시작하여 이제는 동성애 장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앨리슨 북스 Alyson Books도 처음에는 에이즈 신문 보급을 위해 출판사를 부차적으로 설립했다고 한다. 이 출판사는 처음에는 남성 게이들을 위한 책을 출판하다가 남성, 여성 모두를 다루게 되었는데 현재 어느 일반 출판사와 마찬가지로 소설, 자가 치유, 미스터리, 어린이 서적을 출간하고 있다. 동성 부모를 둔 어린이를 위해서 '원더랜드'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고 1986년 발표된 미스터리 시리즈물 '짧은 죽음 Little Death' 도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고 있다.

1980년대 남성폭력에 대한 페미니스트 저항이라는 주제로 《반격 Fight Back》을 출간한 클레이스 프레스는 1990년대까지 여성들만을 위한 책을 출간해 오다가 현재 게이, 레즈비언 연구, 문학, 인권, 미술 등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클레이스 프레스 Cleis Press는 동성애 장르가 확립되기 전 여성이라는 범주에 그

● 이 글을 쓴 허선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출판을 전공했고 2003년 미국에서 PMA Publishing university 과정을 수료했다. 논문으로 《도서 및 저작권의 수출입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평화출판사와 진선출판사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출판마케팅협회 회원으로 서울 삼청동길 입구에서 갤러리 진선 www.galleryjinsun.com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 출판된 동성애 책들. 미국 여론과 달리 출판계에선 동성애가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자리잡았다.

들의 타이틀을 홍보하였고, 전문 세일즈맨을 고용하여 동성애 서적의 판매를 높여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 출판사의 판매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10퍼센트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동성결혼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작년은 20퍼센트 가량의 판매 성장을 이루었다고 한다.

마 케 팅 의 다 양 화

부티크 호텔 체인과 한 대학출판사가 동성애관련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작년 18개의 W호텔은 게이달인 6월에 시작되어 12월까지 이어진 '원더랜드 프라이드' 패키지에 위스콘신 대학의 《원더랜드 Wonderlands: Good Gay Travel Writing》를 포함시켰다. 우연히 호텔의 패키지 이름과 책제목이 같아 공동 마케팅을 하게 된 이 패키지 상품은 호텔측이 여행객에게 나눠주는 선물바구니 안에 위스콘신 대학 출판사의 책을 포함시킨 것이다. 출판사측의 저자 투어를 통한 소개와 그 다음으로 호텔의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책 판매를 2배로 늘려주었다.

또한 이 대학 출판사는 이미 발표된 영화를 출판해 영화의 후광을 노리는 마케팅을 시도하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중 전쟁을 피해 농장에 숨어든 네덜란드계 유대인 소년이 겪는 이중적 성관계를 그린 소설 《내연의 비밀 Secretly Inside》은 바로 벨기에 컬트감독 바보 드퍼너의 동명 영화를 소설화한 것이다. 또한 유대인 전통에서 동성애를 다룬 《신과 인간과의 레슬링 Wrestling with God and Men》은 랍비 스티븐 그린버그의 다큐멘터리 영화 《신님의 두려움 Trembling before God》을 토대로 쓰인 글로 한 달 만에 제판을 찍기도 했다.

일 상 생 활 을 반 영 하 는 동 성 애 관 련 어 린 이 도 서

3년 전 왕자님이 왕자님과 만나 결혼하는 이야기를 동화로 표현한 《왕과 왕 King & King》의 발표는 출판계에 큰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게이, 레즈비언 부모와 자녀 같은 동성 가족이 주류 출판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면서 일상생활을 반영하는 어린이도서가 활발히 출간되고 있다. 이는 그림책을 통해 어린 독자들이 여러 사회적 이슈들과 쉽게 친숙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도서 시장에서 게이, 레즈비언을 다루는 것이 무척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레즈비언 2명을 엄마로 둔 물리가 어느 날 자신의 엄마가 둘이라는 이유

로 그녀의 유치원 친구들과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몰리 가족 Molly's Family》은 간혹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동성부모의 자녀에 대한 편견과 소외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 낸시 가든은 자신이 패널로 참석한 컨퍼런스에서 실제로 게이부모를 둔 어린아이가 자신의 환경을 그린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에 영감을 얻어 저작했다고 한다.

미국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그린 《어디에나 애기들 Everywhere Babies》은 많은 인종이 어울려 사는 도심을 배경으로 서로 다른 인종의 레즈비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가 다른 게이부모와 함께 자신들의 아이들을 지켜보는 이야기를 그린 책으로 동성애뿐만 아니라 미국이 가진 다양성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동성애가 쉬쉬하며 숨겨야 할 일도 창피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문화의 다변화 속에 동성애도 우리 일상과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다양한 문화를 대변하고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는 우리 출판계도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 측면에서 동성애를 다뤄야 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한민**